

청년고용의 현재와 해결의 실마리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들에게 있어 생애 가장 생동감 넘쳐야 할 시기인 지금, 그들의 얼굴에선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 ‘N포 세대’라 불리며, 연애·결혼·출산에 이어 내집마련·인간관계를 단념하고, 더 나아가 희망과 삶에 대한 포기를 강요받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있어 실업문제는 새로운 것 없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푸름으로 대변되는 청년의 표상은 사라지고, 당장의 내일도 바라볼 겨를이 없는 이들에게 허락된 젊음은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아직은 괜찮다는, 열정이란 이름으로 강요된 사회적 잣대일 뿐이다.

최근 노동시장 여건 개선에 따라,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자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고용은 큰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기인하며, 청년 취업자 수는 1만 6천 명 감소, 실업자 수는 1천 명 증가하였다. 청년 실업률 역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9.3%를 기록하였고,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0%p 증가한 22.6%를 기록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은 타 연령대와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악화추세를 이어가고 있다.¹⁾

1)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의 증가는 단시간 근로·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시간관련추가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청년고용의 문제는 일자리 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일자리 근속기간은 짧아지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져 있는 등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으로 대변되는 청년 일자리의 질적 악화는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부정적 과급효과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청년고용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저성장 추세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 각국은 이에 기인한 청년고용 사정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에 있어 그 악화 추세와 규모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 고용률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인 니트의 비중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위 논의의 연장선에서, 청년 노동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6월 30일 OECD와 공동으로 청년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 「Pathways to Youth Employment: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의 모색」을 개최한 바 있다.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인 Stefano Scarpetta를 포함하여 3명의 청년고용 전문가가 참여하여 호주, 독일, 일본과 프랑스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청년고용 실태와 관련정책을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실태에 적합한 정책 개선방안과 각국의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기획특집의 원고는 위 컨퍼런스의 논의자료를 바탕으로 요약·보완된 것이며, OECD 주요국의 청년고용 실태와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의 미래를 전망하고, 청년고용의 개선, 더 나아가 전체 노동시장의 발전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그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가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KLI**